

# 백용성과 대각사 연구

허정선\*

• 목 차 •

- I. 서론
- II. 1기(1911년~1920년)의 대각사
  - 1. 대각사 창건
  - 2.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이 된 대각사
- III. 2기(1921년~1935년)의 대각사
  - 1. 역경사업과 저술사업의 場
  - 2. 저항으로서의 대각교 선포의 場
  - 3. 대중포교의 중심 場
- IV. 3기(1936년~1940년)의 대각사
  - 1. 범어사로 소유권 인계
  - 2. 역경사업과 저술사업 지속
  - 3.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 전환
- V. 결론

---

\* 동국대학교 대학원(선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 『大覺思想』 제34집 (2020년 12월), pp.67-97.

## 한글요약

백용성(1864~1940)은 19세기 말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에 활동했던 불교의 선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백용성은 전법의 땅이며 3·1 독립운동의 성지인 대각사를 창건했다. 백용성은 그 암울했던 시대에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과 독립을 위해 크게 노력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동학 민란 및 유교의 쇠퇴로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사회였다. 불교 또한 조선왕조 초기부터 억불숭유 정책으로 극심한 탄압을 받아 왔으며 그 결과 겨우 법통을 이으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출가한 백용성은 전국의 여러 사찰과 선원에서 수행한 후 1911년 서울로 상경하여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1916년 백용성은 그의 대각사상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 그리고 대중포교 활동의 거점이 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번지에 위치한 대각사를 창건하였다. 또한 백용성은 삼장역회를 출범시켜 수많은 역경 사업, 한글 대각교 의식집을 포함한 활발한 저술 활동 등 불교 포교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백용성과 대각사 연구를 위해 필자는 세 시기로 구분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백용성이 상경한 1911년부터 백용성이 3·1 독립운동 민족대표로 옥고를 치르게 되는 1920년까지를 첫 번째 단계로 구분하였다. 1기에서는 대각사의 창건과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대각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백용성이 경성 감옥에서 출옥한 해이면서 삼장역회를 출범시킨 해인 1921년부터 대각사의 소유권이 범어사로 인계되는 1936년 전해인 1935년까지를 두 번째 시기로 구분하였다. 2기에서는 역경 사업과 저술사업의 장, 저항으로서의 대각교 선포의 장, 그리고 대중 포교를 위한 중심이 되는 場으로서 대각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6년부터 백용성이 입적하는 1940년까지를 마지막 세 번째 시기로 구분하였다. 3기에서는 대각사의 범어사로 소유권 인계, 계속된 번역과 저술사업의 場, 그리고 대각사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을 다루었다. 백용성이 한국 불교사에 길이길이 기념되듯이 대각사가 한국불교발전에 끼친 영향도 백용성과 더불어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 주제어

백용성, 대각교, 대각사상, 대각사, 전법의 성지, 3·1 독립운동, 삼장역회, 저술사업, 역경사업,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

## I. 서론

백용성(1864~1940)은 19세기 말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하고 있던 시기에 활동했던 불교의 선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백용성은 국권을 상실한 암울했던 시대에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과 독립을 위해 크게 노력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동학 민란 및 유교의 쇠퇴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사회였다. 불교 또한 조선왕조 초기부터 억불숭유 정책으로 극심한 탄압을 받아 왔으며 그 결과 겨우 법통을 이으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sup>1)</sup>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출가한 백용성은 전국의 여러 사찰과 선원에서 수행한 후 1911년 서울로 상경하여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1916년 백용성은 그의 대각사상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 그리고 대중포교 활동의 거점이 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번지에 위치한 대각사<sup>2)</sup>를 창건하였다. 또한 백용성은 삼장역회를 출범시켜 수많은 역경 사업과 한글 대각교 의식집을 포함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불교 포교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백용성은 또한 대처식육이라는 일본불교의 침투에 맞서서 두 차례에 걸쳐 건백서를 일제 총독부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거부되자 대각교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백용성이 추구한 대각교는 그 당시 불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이다.<sup>3)</sup>

이렇듯이 선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백용성은 서울의 도심에 대각사를 창건했다. 그러나 대각사의 창건 연대에 대한 논의는 1911년설, 1914년설 그리고 1916년설 등 다양하였다. 백용성의 문도 측은 백용성이 대각사를 서울에 상경한

1) 이상배·류상진, 『서울 2천년사』 24,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4. p.74.

2) 대각사는 백용성이 불교 중흥과 민족중흥을 꾀한 곳이다. 현재 대각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3번지에 위치해 있다. (대각사, 『대각사 대각회 사적기』, 『백용성 대중사 총서』 7,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348.) 1986년 대각사 경내에 있던 묘사채 목조건물 147평을 철거하였다. 현재는 대각사 일주문을 지나면 왼편에 범종각이 있다. 경내중심에는 현재의 모습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총 건평 400여 평 규모의 대각성전이 있다. 이 건물은 2층까지는 현대식, 3층은 한식형 건물로서 팔각지붕 구조이다. 대각성전 건립을 기념하기 위한 대각사 대각회 사적비가 있고 사적비 뒤로 심검당이 있다.

3)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275.

직후인 1911년에 세웠고 그 명칭도 대각사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촉탁이었던 촌산지순(村山智順)이 1935년에 저술한 『조선의 유사종교』에는 1914년에 세워졌고 그 명칭도 선종포교당이라고 적혀 있다.<sup>4)</sup> 1916년설은 백용성이 3·1운동에 참가한 후 일제에 잡혀가 심문을 받을 때 대각사 주소인 봉익동 1번지에 53세 때부터 ‘단독으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더욱 무게를 두어 보광은 그의 글 「백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에서 대각사 창건 시기를 기존의 1911년에서 1916년으로 정정하였다.<sup>5)</sup> 김광식도 1916년부터 백용성이 오늘날 대각사의 모태인 봉익동 1번지에 머물렀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백용성이 직접 구술하고 있는 1916년(53세)을 대각사 창건 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여하튼 대각사는 창건 후 백용성에 의해 역경 사업과 저술사업, 민족운동, 대중종교 운동의 거점이 된다. 그리고 백용성은 1940년 대각사에서 입적했다. 대각사는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한 많은 지사들이 다녀간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백용성의 대각사상 즉 한국 불교개혁 운동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였다. 또한 삼장역회와 더불어 백용성의 많은 번역서와 저술이 발간된 곳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대각사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상태이다. 이는 자료가 부족하여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대각사 그자체에 대한 연구는 자료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대각사를 창건한 백용성의 포교활동은 모두 대각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불교의 개혁도 대각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제에 대한 저항도 대각사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각사를 중심으로 한 백용성의 포교활동을 세 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911년은 백용성이 상경한 매우 의미있는 해였다. 그리고 대각사가 비록 1916년에 창건되었다 할지라도 백용성의 대각사상의 발현은 이미 신도 강(姜)씨의 집에서 도회지 참선 포교를 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911년부터 백용성이 3·1 독립운동 민족대표로 옥고를 치르게 되는 1920년까지를 첫 번째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백용성이 경성 감옥에서 출옥한 해이면서 삼장

4) 김광식, 『백용성』, 민족사, 1999, p.98.

5)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大覺思想』 2집, 大覺思想研究院, 1999, p.35.

6) 김광식, 「불교 근대화의 노선과 백용성의 대각교」,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p.142-143.

역회를 출범시킨 해인 1921년부터 대각사의 소유권이 범어사로 인계되는 1936년 전체인 1935년까지를 두 번째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6년부터 백용성이 입적하는 1940년까지를 마지막 세 번째 시기로 구분하였다. 백용성의 입적 이후 대각사 및 대각회 설립 등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별도로 고찰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이 세 시기를 중심으로 백용성과 대각사의 상관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백용성의 포교, 저술, 역경, 대각교 활동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 II. 1기(1911년~1920년)의 대각사

조선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한국 불교계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 일들을 저지른다. 이 당시 조선에서는 유생들이 주도하여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스님들은 산사에서 의병들에게 식량과 숙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병들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천년 고찰들을 불태워 버린다.<sup>7)</sup> 의병운동에 대해 일제는 수많은 마을을 불 질렀으며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이 입은 피해도 매우 컸다.<sup>8)</sup>

일본 조동종의 승려 다계다는 조선 불교 최초의 종단인 원종과 합종을 시도하였다. 이 다계다가 1895년 조선의 왕비 민비를 살해하는데 가담했던 바로 그 승려였다.<sup>9)</sup> 1911년 백용성이 한국 전통불교의 중흥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산사를 떠나 경성으로 나가게 되는 데는 이러한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전통불교 수호, 불교의 대중화와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7) 박희승, 『이제 승려의 입성을 허함이 어떨는지요』, 들녘, 1999, pp.223-226.

8) 위의 책, p.228.

9) 이상배·류상진, 『서울 2천년사』 24,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4, p.81.

## 1. 대각사 창건

백용성은 1910년 지리산 칠불선원의 종주로 있으면서 『귀원정중』을 저술한다. 그리고 1911년 경성으로 상경한다. 그는 상경 직후 곧바로 도회지 선 포교, 민족 불교 수호 활동을 힘차게 전개하였다.<sup>10)</sup> 그 당시는 오랜 기간 조선의 억불숭유 정책으로 다른 종교들의 교세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불교의 대중포교 활동은 열악한 상황이었다. 단적인 예로 도성 안에는 사찰이라고는 각황사(覺皇寺) 하나밖에 없었다. 백용성은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그의 저서 『조선글 화엄경』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듬해 신해년(1911) 2월 그믐에 경성에 들어와서 시대사조를 관찰해보니, 다른 종교에서는 곳곳마다 교당을 설립하고 종소리가 쟁쟁하며 교중(敎衆)이 교당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각황사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더욱이 우리 선종에서는 한 명도 선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 한탄스러워 즉시 입제 선사가 삼구로 교화한 것을 본받아서 종지를 거량하였을 따름이었다.<sup>11)</sup>

여기서 잠깐 백용성이 경성에 상경할 시기에 있었던 경성의 각황사를 살펴보겠다. 1902년 조선 정부는 경성의 4대문 중의 하나인 동대문 밖에 원흥사를 세운다. 그곳에서 1908년 이회광 스님을 비롯한 조선 각도 사찰 대표 스님 52인은 300여 년만에 최초의 불교 종단인 원종을 창종 한다.<sup>12)</sup>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일은 한국 불교 중앙 포교소인 각황사는 원종의 경성 포교당이라는 것이다. 1910년 전국의 각 사찰은 함께 의논하여 경성 전동(현 수송동)에 각황사(覺皇寺)를 신축했다. 그리고 각황사를 한국불교 중앙 포교소로 삼았다.<sup>13)</sup> 각황사는 조선 시대 억불숭유의 암울한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 도시에 설립된 첫 사찰이었다. 각황사는 1937년 지금의 조계사를 지을 때까지 한국 불교계의 총본산 역할을 하

10)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과정 고찰」,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155.

11) 백용성,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백용성 대중사 총서』 6,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449.

12) 박희승, 『이제 승려의 입성을 허함이 어떨는지요』, 들녘, 1999, p.244.

13) 김순석,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운주사, 2009, p.50.

게 된다. 은둔 불교에서 대중불교로, 산중 불교에서 도시 불교로 전환하는 일대 계기를 만들었다.<sup>14)</sup> 백용성이 상경해서 경성에 절이라고는 각황사 하나밖에 없었다고 서술한 부분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백용성은 상경 후 1911년 서울 대사동의 한 신도인 姜氏 집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선회를 개설한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수백명의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백용성은 이에 서울 도심 포교에 자신감을 얻어 신도 강영균(康永均) 집인 가회동 211번지에 당시로서는 최초로 도회지 참선 포교당을 개원하였다.<sup>15)</sup> 이렇듯 백용성은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포교 활동에 나선다. 그리고 이러한 도회지에서의 포교 활동이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고 백성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화중생이라 생각했다.<sup>16)</sup>

이 시기에 백용성은 주로 조선 임제종 중앙 포교당(朝鮮臨齋宗中央布敎堂)에 한용운과 함께 주석하며 포교활동에 전념하였다. 한편 1912년 일제의 외압으로 조선 임제종 중앙 포교당(朝鮮臨齋宗中央布敎堂)을 조선선종포교당(朝鮮禪宗布敎堂)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1913년에 『귀원정종(歸源正宗)』이나 『불문입교문답(佛門入敎問答)』 등의 교화 서적도 출간하였다.<sup>17)</sup>

<표 1> 1911년 - 1920년 백용성 저술서

시기	대상	발행처
1913. 6.	歸源正宗	조선선종중앙포교당
1913. 10.	佛門入敎問答	조선선종중앙포교당

백용성은 1915년 무렵,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최초로 운영한 포교당인 조선

14) 박희승, 『이제 승려의 입성을 허함이 어떨는지요』, 들녘, 1999, p.252.

15)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대중포교활동」, 『大覺思想』 6집, 大覺思想研究院, 2003, pp.59-60.

16) 김택근, 『백용성평전』, 모과나무, 2019, p.272.

17)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大覺思想』 2집, 大覺思想研究院, 1999, p.14. 보광은 백용성의 48세인 1911년부터 58세인 1921년까지를 백용성 생애의 중반기로 분류했다. 이 10년을 대중교화기(大衆敎化期)와 옥중발원기(獄中發願期)로 불렀다.

임제파 강구소를 설립한다. 독자적인 불교 포교에 나선 것이다.<sup>18)</sup> 한편 백용성의 대각사 창건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1911년설, 1914년설과 1916년설 세 가지가 있었다. 백용성의 문도들은 1911년에 우면산 대성초당에 주석하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번지에 대각사를 창건했다고 주장한다.<sup>19)</sup> 또한 『조선의 유사종교』에서는 1914년을 대각사 창건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광은 1916년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그 논거는 1919년 7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백용성이 직접 구술한 취조서 때문이다.

문: 성명은?

답: 白相奎이다.(中略, 前例檢事局問答과 同一하므로)

문: 피고는 어떤 절(寺)에 소속되고 있는가?

답: 경상남도 협천 해인사의 승려로 있었고 그 후 범어사(梵魚寺)에서 경영하던 경성 포교소에 있다가 53세 때부터 鳳巖洞 1번지에서 단독으로 있었다.<sup>21)</sup>

이렇게 세 가지 연도설을 볼 때 필자는 백용성이 53세 때부터 봉익동 1번지에서 홀로 있었다는 1916년설이 가장 신뢰할만한 창건 연대기로 본다. 그리고 이 때부터 대각사는 한국 불교의 발전에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2.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이 된 대각사

백용성은 1916년에는 함경도 북청에서 금광을 경영하기도 했다. 이는 포교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지만<sup>22)</sup>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통행증을 얻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sup>23)</sup> 자료에 의하면 백용성은 대각

18) 김광식, 「용성과 한암의 행적에 나타난 정체성」,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192.

19) 김택근, 『백용성평전』, 모과나무, 2019, p.499.

20)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大覺思想』 2집, 大覺思想研究院, 1999, pp.34-35.

21) 이병헌, 「백용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출판국, 2002, p.141.

22) 김광식, 「용성과 한암의 행적에 나타난 정체성」,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192.

23) 『大覺寺』,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대각사, 2013, p.29.

사에서 만해와 만나며 시국 돌아가는 대화를 자주 했다고 한다.<sup>24)</sup> 만해 한용운은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9년 2월, 백용성이 주석하고 있는 대각사를 방문한다. 그리고 3·1 독립운동의 민족대표로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백용성은 이를 수용한다. 당시의 상황은 3·1 운동 당일의 첫 번째 경찰의 취조문에서 볼 수 있다.

韓龍雲이란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구주 전쟁의 결과 파리강화회의에서 각국은 독립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도 독립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명일 내로 선언하려고 하니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므로 그런 일이면 마땅히 찬성한다고 하였다.<sup>25)</sup>

백용성은 3·1운동 추진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취조문에서 그의 민족독립에 대한 입장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해 보인다.<sup>26)</sup>

백용성은 한용운과 함께 3·1 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한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보광은 「백용성스님의 중반기의 생애」에서 백용성의 취조서에서 언제라도 독립운동을 다시 하겠다는 그의 당당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sup>27)</sup>

문: 피고 등은 조선의 독립을 강화회의의 문제로 삼고 일본으로 하여금 독립을 어쩔수 없이 승인하도록 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가.

답: 나는 그런 것은 모른다. 나는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은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또 불교상으로 보더라도 조선의 독립은 마땅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하여튼 조선의 독립은 용이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는 터이다.<sup>28)</sup>

24) 『大覺寺』,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대각사, 2013, p.5.

25) 이병헌, 「백용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출판국, 2002, pp.137-138.

26) 김광식, 「백용서 사상과 민족운동 방략」,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62.

27)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大覺思想』 2집, 大覺思想研究院, 1999, p.46.

28) 「백상규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12권(3·1운동, 2), 국사편찬위원회, 1990, p.91.

1919년 8월 27일 고등법원 재판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가 독립선언에 참여한 목적을 물었다. 백용성은 조선의 독립은 필요하며 조선의 독립은 마땅한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하였다. 대각사는 민족독립 운동을 위하여 세워진 성지였다.<sup>29)</sup> 3·1운동 당시 33인의 민족대표 중에서 불교계 인사는 백용성과 만해 두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역할은 아주 지대하였고 그들은 변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일제의 감시는 무척 심하였다.<sup>30)</sup> 백용성과 만해 한용운으로 대표되는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이 대각사에 모여 의논하였기에 대각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요컨대, 대각사는 한국 독립운동의 불교계 산실이 되었던 것이다.

### III. 2기(1921년~1935년)의 대각사

#### 1. 역경사업과 저술사업의 場

이 시기 대각사는 역경 사업과 저술사업의 중심이 된다. 두 번째 시기가 시작하는 1921년은 백용성이 경성 감옥에서 출옥한 해이다. 백용성은 경성 감옥에서 출옥한 후 그의 상좌들로부터 대각사가 백용성의 몇 명 상좌들에 의해서 몰래 매각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대각사가 없어진 것이다.<sup>31)</sup> 그러나 백용성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 다짐한 역경 사업을 통한 불교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1921년 역경 사업 조직체인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출범시킨다. 1922년에 대각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봉익동 2번지에 대각교당을 설립하고 또한 같은 해 삼장역회도 가회동 211번지에서 봉익동 2번지로 옮겨온다.<sup>32)</sup> 즉 백용성의 역경을 추진한 삼장역회가 대각교당으로 이전하면서 대각사는 번역사업과 저술 활동 그리고 백용성의 불교개혁 운동의 중심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921년에서 1935년 대각사에서 행해졌던 백용성의 저술과 역경에 대해서

29) 『大覺寺』,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대각사, 2013, p.4.

30) 김택근, 『백용성평전』, 모과나무, 2019, p.94.

31) 김택근, 위의 책, p.306.

32)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三藏譯會 설립과 허가취득」, 『大覺思想』 9집, 大覺思想研究院, 2006, p.60.

도 다뤄보고자 한다.

백용성은 1919년 3·1 독립운동 때 독립선언에 참가한 이유로 서대문 감옥에 수감 된다. 백용성은 수감 중에 타 종교가 우리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불교는 당시 아직도 생소하고 어려운 한문 경전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백용성이 역경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한 순간이었다.<sup>33)</sup> 산중 불교에서 도심에서의 생활불교가 되기 위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우선 어려운 불경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sup>34)</sup> 이는 승려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교의 기본 교리를 일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sup>35)</sup>

백용성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한문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았다. 그래서 우리글로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다짐한다. 특히 산중도 아닌 도심에서 한문으로 불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불교 포교에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백용성은 느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백용성은 서대문 감옥에서 출옥한 1921년 바로 경성에서 삼장약회를 조직한다.<sup>36)</sup> 그리고 본격적으로 불경을 번역하고 저서를 출판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조선 시대에 있었던 간경도감 이후 최초의 불교 경전 번역사업이었고 이때 백용성은 한글 번역에 있어서도 체계화를 시도하였다.<sup>37)</sup>

그는 저술을 통해 당시 불교는 복을 빌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미신을 믿는 비합리적인 종교라는 그 당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의 공격에 대응해야만 했다.<sup>38)</sup> 백용성은 경전 번역뿐만 아니라 『귀원정중』, 『수심정로』, 『대각교의식』, 『각해일륜』, 『오도는 각』 등의 많은 저술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번역과 저술 활동을 통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임을 알렸다. 그리고 그가 평생 펼쳤던 ‘대각사상’에서 말했듯이 불교는 자각과 타각을 가르치는 종교임<sup>39)</sup>을

33) 백용성,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 『백용성 대종사 총서』 6,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p.449-450.

34)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p.124.

35) 한동민, 『백용성』, 역사공간, 2018, p.98.

36) 김정희, 「백용성의 생애와 불교개혁론」, 『불교평론』 12, 현대불교사, 2010, p.362.

37) 한보광, 「일제시대 三藏譯會의 성립과 역할」, 『전자불전』 4, 동국대학교 전자불전 연구소, 2002, p.64.

38) 한동민, 앞의 책, p.48.

역경과 저술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백용성은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 문어체 경전을 대화체로 전환하고 불교 용어들도 새로운 단어로 바꾸어 기존의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꾸려고 노력했다.<sup>40)</sup> 또한 현실적으로 경전을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였다. 백용성의 역경 사업 및 저술작업을 통해서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지성화를 강조한 그의 정신을 우리는 또한 잊볼 수 있다.<sup>41)</sup> 그 당시 타 종교의 활발한 포교활동에 비해서 산중 불교로 대중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던 불교는 도시에서 다시 대중 속에 살아있는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는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백용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표 2> 1921년~1935년 백용성 저술서<sup>42)</sup>

시 기	대 상	발 행 처
1921. 9.	心造萬有論 제1판 心造萬有論 제2판	삼장역회, 가회동 211번지
1922. 9.	八相錄	삼장역회
1927.	大覺教儀式	대각교중앙본부
1930. 3.	覺海日輪 (부록: 수심정로, 육조단경)	대각교중앙본부
1933. 6.	晴空圓日	대각교중앙본부
1935. 6.	大覺教灌頂師遺憲	대각교중앙본부

39) 김정희, 「백용성의 생애와 불교개혁론」, 『불교평론』 12, 현대불교사, 2010, pp.363-364.

40) 한보광, 「일제시대 三藏譯會의 성립과 역할」, 『전자불전』 4, 동국대학교 전자불전 연구소, 2002, p.66.

41) 박영만, 「龍城禪師의 教化 樣態 考察」, 『大覺思想』 25집, 大覺思想研究院, 2016, p.183.

42) 이 시기에 속하는 1923년 2월, 백용성은 선문촬요(禪門撮要)를 저술하였는데 이는 대각사가 아닌 범어사에서 발간하였기에 여기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lt;표 3&gt; 1921년~1935년 백용성 번역서

시 기	대 상	발 행 처
1921. 5.	梵網經演義	삼장역회, 가회동 211번지
1922. 1.	新譯大藏經 金剛經講義	삼장역회
1922. 1.	新譯大藏 金剛般若波羅密經	삼장역회
1922. 3.	首楞嚴經鮮韓演義(上)	삼장역회
1922. 7.	首楞嚴經鮮韓演義(下)	삼장역회, 봉익동 2번지
1922. 9.	覺頂心觀音正士摠持經	대각교회, 봉익동 2번지
1922. 9. .	金毗羅童子威德經	대각교회
1924. 6.	鮮漢文譯 禪門撮要 (부록: 수심정로)	삼장역회
1924. 7.	大方廣圓覺經	삼장역회
1926. 4.	詳譯科解 金剛經	삼장역회
1927. 11.	조선글 화엄경華嚴經	삼장역회
1928. 1.	八陽經	삼장역회
1930. 9.	大乘起信論	대각교중앙본부
1930. 10.	灌頂伏魔經	대각교중앙본부
1933. 1.	覺說梵網經(상 중 하 합편) (부록: 대각교 수계의식, 대각교 참회 행법)	대각교중앙본부

위와 같이 대각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경이 번역되고 저술이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대각사는 한국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정립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 2. 저항으로서의 대각교 선포의 場

이 시기에 두드러진 백용성의 활동으로 일제 총독부에 제출한 두 번의 건백서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각사는 저항으로서의 대각교<sup>43)</sup>를 선포하는 장이 되

었다. 백용성은 대각교를 선포하고 기성 불교교단에서 스스로 이탈했다. 불교계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다.<sup>44)</sup> 일본은 1911년 부칙과 함께 7조를 8조로 만들어 사찰령을 발표한다.<sup>45)</sup> 일본은 사찰령 하에 조선 불교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통 한국 불교를 대처식육(帶妻食肉)을 하는 일본식 불교로 속세화 시켰다.<sup>46)</sup> 특히 일본이 주도한 대처는 한국 불교계가 1700년 동안 지켜왔던 청정 비구의 전통을 파기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족을 거느린 승려들이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조선 사찰을 경제적으로 침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지 쟁탈전, 부정사건, 파쟁 사건의 근원이 되었다.<sup>47)</sup> 이는 전통 한국 불교의 지속적인 분란의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 전통 불교를 몰락시키기 위해 온갖 정책을 펼쳤다.

백용성은 일제 식민지 불교 정책에 대한 단호한 저항으로 1926년 1, 2차에 걸쳐 대처식육을 반대하는 내용의 건백서를 일제 총독과 내무성에 제출했다.<sup>48)</sup> 그러나 이 건백서가 제시한 내용들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건백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백용성은 불교를 완전히 개혁하기 위해서 기존의 불교라는 명칭까지도 바꾸며 1927년 중앙 본부인 대각사에서 대각교(大覺敎)를 선포한다. 그리고 ‘대각교중앙본부’라는 간판을 건다.<sup>49)</sup> 대각교는 백용성이 설립한 불교 교단이며<sup>50)</sup> 백용성의 대각교는 불교개혁 운동이었다.<sup>51)</sup>

43) 백용성이 ‘대각교’라는 것을 최초로 쓴 것은 1922년 음력 4월 초파일이다. 봉익동 2번지 대각사는 ‘대각교당’과 ‘대각교회’ 둘을 다 지칭한다. (김광식, 「백용서 사상과 민족운동 방략」,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74.)

44) 한동민, 『백용성』, 역사공간, 2018, pp.117-118.

45)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 근대편』, 이병두 역주, 해안, 2003, pp.249-256.

46) 신지견, 『25+10=X』, 불교신문사, 2018, p.235.

47)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帶妻食肉論과 白龍城의 建白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1997, p.220.

48) 위의 논문, p.201.

49) 김광식, 「백용성 만일참선결사회의 전개와 성격」,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309.

50)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155.

51) 위의 책, p.275.

보광은 「백용성 선사사의 불교 개혁론」에서 백용성 개혁의 실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대각교 운동을 소개하였다. 즉 그는 대각교 운동의 실천 방향을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저술과 역경활동, 선의 대중화, 항일독립운동, 교단의 정화운동, 사원경제의 자립화 그리고 포교의 현대화가 그것이다.<sup>52)</sup> 김종인은 20세기 초 한용운을 비롯한 불교개혁을 외친 인물이 많이 있지만, 오직 백용성만이 불교개혁을 실천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sup>53)</sup> 김광식은 「불교 근대화의 노선과 백용성의 대각교」에서 보수적인 선학원 노선, 진보적인 한용운 노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백용성의 노선은 보수와 진보를 동시에 취하는 합리적인 노선으로 보고자 했다. 그리고 백용성의 노선이야말로 한국 불교계가 우리의 근대화시기에 취했어야 할 노선이 아니었는지 주장하고 있다.<sup>54)</sup>

위에서 살핀 대로 백용성은 대각사에서 일제의 불교정책에 반대하는 건백서를 올렸으며 이것이 거절당하자 대각교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기성 불교교단에서 이탈한다. 그리하여 대각사는 독립운동의 산실을 넘어서서 불교개혁 운동의 선두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백용성은 이를 실천에 옮겼으며 그 저항의 중심에 대각사가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 3. 대중포교의 중심 場

이 시기 대각사는 대중포교의 중심 場이 되었다. 1927년 백용성은 서울 경성에서 대각교를 선포하고 대각교 의식집을 한글로 만든다. 이 의식집을 통해 한글로 번역된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각 종파에서도 대각교 의식집을 본 따서 우리말로 진행했다.<sup>55)</sup> 박영만은 대각교 의식의 간행 의의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식집을 통해 그 당시 대각교는 의례 또한 간소화하여 대중포교가 보다 더 쉽게 이뤄지게 했던 것이다.<sup>56)</sup>

52) 한보광, 「백용성선사의 불교개혁론」, 『회당학보』 2, 회당학회, 1993, pp.37-46.

53) 김종인, 「백용성의 근대와의 만남과 불교개혁 운동」, 『大覺思想』 23집, 大覺思想研究院, 2015, p.148.

54) 김광식, 「불교 근대화의 노선과 백용성의 대각교」, 『大覺思想』 10집, 大覺思想研究院, 2007, p.456.

55) 김택근, 『백용성평전』, 모과나무, 2019, p.387.

<표 4> 대각교 의식<sup>57)</sup>

목 차	내 용
제1장	香禮
제2장	聖供節次
제3장	『圓覺經』 「文殊場」
제4장	「普門品」
제5장	『般若心經』
제6장	施食略禮
제7장	施食廣禮
제8장	救病施食
제9장	舉揚
제10장	婚禮
제11장	病人看護
제12장	喪禮
제13장 <sup>58)</sup>	往生歌
제14장	勸世歌
제15장	大覺教歌
제16장	世界起始歌
제17장	衆生起始歌
제18장	衆生相續歌
제19장	入山歌
제20장	極樂世界路程記
제21장	六字呪易行觀法

56) 박영만, 「龍城 禪師의 教化 樣態 考察」, 『大覺思想』 25집, 大覺思想研究院, 2016, p.185.

57) 백용성, 「대각교 의식」,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p.489-492.

대각교 의식에서 제1장 향례는 향을 올리며 간략히 삼보님께 사정례하는 의식이다. 이는 종례보다 더 간략히 행해지는데 의례의 간소화라는 대각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sup>59)</sup> 또한, 제2장 성공절차에는 세 번째에 예경이 있다. 여기서는 진언권공이 끝나고 삼정례 공양 예경을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현행 예참 공양과 같은 구정례 예경 공양을 한다. 이것은 현재 한국불교의 공양 모습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sup>60)</sup> 이처럼 백용성의 대각교 의식은 지금 현대 의식에도 영향을 끼치며 또한 그 당시 대중포교를 좀 더 용이하게 했으리라 본다.

백용성은 1928년에 대각교당에서 대각 일요학교를 시작하여 어린이 법회를 열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심에서 어린이 포교를 시작한 것이다. 한 예로 1920년생 성옥님 할머니는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열 살 전후 되던 시기부터 백용성스님의 대각사에 다녔다고 한다. 성 할머니는 어린 나이로 궁에 들어가 침봉 나인으로 일했다 한다. 그 당시 궁에 있던 많은 아가나인들은 학교가 쉬는 일요일이면 상궁들을 따라 대각사에 다녔다. 여기서 우리는 대각사에는 일반 신도들뿐만 아니라 궁궐의 상궁들도 왕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박범훈은 그의 박사 논문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대한 연구』에서 백용성이 집필한 『대각교 의식』의 목차 속에서 백용성의 찬불가 작품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백용성식 예불의식에서 그 당시 기존의 불교 의식과 전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불교 의식 식순에 찬불가를 지정했다는 것이다.<sup>61)</sup> 대중들이 찬불가를 부름으로써 쉽게 불교를 접하며 불교 의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곧 찬불가 및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되었다. 위의 성할머니는 인터뷰 당시, 어릴적 배웠던 『대각교 의식』 속에 있는 제14장 「권세가」(표1참조)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불렀다. 할

58) 박범훈은 그의 동국대학교 박사 논문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대한 연구』에서 백용성식 예불 의식인 대각의식의 21개의 장중에 7개 장(음영 부분)이 찬불가로 구성되어 있다며 백용성이 찬불가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박범훈,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박사논문, 1998, p.266.).

59) 백용성, 『대각교 의식』,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493.

60) 위의 책, p.499.

61) 박범훈,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박사논문, 1998, p.265.

머니는 절은 어른들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노래하고 법문 듣는 재미로 휴일이면 법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회고했다.<sup>62)</sup> 백용성의 대각교 의식 속의 찬불가가 도심 대중포교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포교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본다.

<표 5> 현대 법회 식순<sup>63)</sup>

법회식순
1. 삼귀의례
2. 반야심경 봉독
3. 찬불가
4. 청법가
5. 입정
6. 법문
7. 사홍서원
8. 산회가

또한 찬불가는 사찰에서 행해지는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불교 행사에서도 폭넓게 불리면서 대중포교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박범훈은 주장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당시 찬불가는 위기에 처한 조선말의 한국불교를 다시 생활불교로 태어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sup>64)</sup> 이 점은 백용성이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에도 비슷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 왜냐하면 백용성이 만든 대각교 의식의 목차는 지금도 성인 법회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법회까지 다양한 법회와 불교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 5>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불교 의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순인데 찬불가 및 노래가(음영 부분) 들

62) 김민경, 「노래하는 재미로 법회에 다녔지」, 『법보신문』, 1998.6.3, p.15.

63) 조계사 일요법회 식순 참고

64) 박범훈,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박사논문, 1998, p.252.

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백용성의 예불법이 지금 우리에게 준 영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박범훈은 백용성의 찬불가를 포함하여 현존하는 찬불가의 한국 불교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sup>65)</sup>

백용성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도심에서 일요 학교를 열고, 찬불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심의 어린 학생들이 전통불교 의식에서는 없었던 찬불가를 부르며 불교 의식 속에 쉽게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산사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도심이었기에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의례의 간소화, 한글로 된 찬불가 등은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 시절 백용성은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오르간을 배워 법당에서 연주도 했다.<sup>66)</sup> 정말 당시로서는 스님들이 하기 힘든 포교활동이었는데 도심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백용성의 각고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대각사는 참선수행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각사에서는 1929년부터 재가자들과 함께하는 하안거가 시작되었다. 재가수행자들을 ‘안거(安居)’라고 하는 전통적인 승가의 수행 제도의 틀속에서 수행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특히 여기에 여성 수행자들도 포함시켰다.<sup>67)</sup>

이처럼 그 당시 대각사에서 이루어진 파격적인 포교활동들은 대각사가 대중포교의 중심이 되는 場이 되게 하였다. 당시 백용성이 대각사에서 시도한 새로운 포교활동들은 그 당시 가장 진보적이었고 획기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오늘날 이루어지는 현대의 대중포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65) 첫째, 불교음악의 한국적 전개 과정에서 1920년대에 창작된 새로운 불교음악이라는 점, 둘째, 대중들이 예불 의식이나 불교 행사에 동참하여 쉽게 부를 수 있다는 점, 셋째, 서양음악 기법을 빌려서 작곡된 최초의 불교음악이라는 점, 넷째, 불교합창단을 창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다섯째, 불교 포교에 기여했다는 점 등이다(박범훈, 『불교음악의 전래와 한국적 전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박사논문, 1998, p253.).

66)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청소년 포교에 관한 연구」, 『大覺思想』 8집, 大覺思想研究院, 2005, p.50.

67) 조승미, 「백용성의 참선 대중화 운동과 부인선원」, 『大覺思想』 27집, 大覺思想研究院, 2017, p.206.

## IV. 3기(1936년~1940년)의 대각사

## 1. 범어사로 소유권 인계

1936년 초반 백용성의 신변 및 대각교에 변화가 일어난다.<sup>68)</sup> 백용모는 그의 박사논문 『白龍城의 佛教實踐運動研究』에서 1930년대 중반부터 일제는 대각교를 조선 내의 유사종교로 분류하고 심한 외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그 당시 백용성은 일제의 지나친 외압에 저항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며 기존의 중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다.<sup>69)</sup> 백용성은 「나의 참회록」이라는 글에서 그 당시 그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까지 내게는 조고만치 한 재산도 없고 처자와 가정도 못 가졌었다. 70년 동안 거러운 길이 오로지 眞悟와 大覺만 차저거러 왔었다. 그런데 합병이후 정부에서는 불교도들에게 남너간 혼인을 許하여 주었다. 이것은 부처의 참뜻에 어그러지는 바이다. 그 뒤 나는 분연히 불교에서 물너나 大覺敎란 일과를 따로히 형성시켰다. ‘佛則大覺’이요, ‘大覺則敎’인즉 부처님의 말씀을 따름에는 불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나 다만 결혼만을 엄금하여 오는 것이 특색이라고 하겠다. 그러다가 그만 요사히에 와서 유사종교니 뭐니 해서 大覺敎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당국의 처사에 어찌할 수 없이 또다시 불교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모든 것이 苦衰와 悲衰 뿐이다. 나의 거러운 과거 70년 간을 회고하면 어든 바 소득이 무엇인가? 내 空碧一如한 흥중에는 또다시 六塵緣影이 어즈럽게 떠오른다. 나는 두 눈을 내려감고 정좌한 뒤 參禪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어느때나 ‘大覺’이 되려노 아무래도 내육신이 죽어가기 전에는 이 뜻을 이루지 못할까부다.<sup>70)</sup>

이 참회록에서 백용성은 더 이상 그의 대각교를 이끌어 갈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용성 문도들의 해석도 일제의 간섭으로 대각교 운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즉 재단이 합법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백용성은 1934년 9월에 은행에 신탁 등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sup>71)</sup> 그렇지만 이 주장에 대해

68)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163.

69) 백용모, 『白龍城의 佛教實踐運動研究』,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4, p.159.

70) 白龍城, 「나의 懺悔錄」, 『삼천리』 8권 12호, 1936. 12, pp.82-85.

김광식은 그의 글에서 백용성은 그의 전법을 받을 후계자나 대각교 재산을 정리하는 등 이미 1936년부터 대각교의 노선 검토를 하였다고 한다.<sup>72)</sup>

大覺教堂의 法脈 相續式

市內 鳳翼洞 大覺教堂에서는 去 二月 十六日에 觀音齋日을 利用하여 法脈 相續式을 舉行하였는데 嗣法 及 號와 傳法偈文은 아래와 같다  
嗣法 及 號

龍城大禪師 嗣 完圭 號 東軒  
全            嗣 禎薰 號 道庵  
全            嗣 德綸 號 雷默  
全            嗣 月舟 號 鳳庵

傳法偈文

示 李完圭 東軒 丈室  
山水與拄杖 古人曾點得  
我也打合睡 清風過虛庭  
示 柳禎薰 道庵 丈室  
覺祖傳法事 掉頭吾不知  
雲門胡餅團 鎮州蘿蔔長  
示 崔德綸 雷默 丈室  
聖祖元不會 我亦無所得  
午睡方正濃 山鳥又一聲  
示 邊月舟 鳳庵 丈室  
山頭石轟轟 岩下水澄澄  
讀書又睡眠 花枝鳥聲亂<sup>73)</sup>

이렇듯 백용성은 1936년 전반기를 전법에 대하여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반기에 대각교의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일에 시간을 쏟는다.<sup>74)</sup> 그래서

71)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163.

72) 위의 책, p.164.

73) 「大覺教堂의 法脈 相續式」, 『불교시보』 8호, 1936. 3, p.6.

선택한 것이 대각교당을 해인사 경성포교당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시내 봉익정 이번지에 잇는 大覺敎堂은 白龍城禪師가 創立한 敎堂으로서 禪師는 생각하되 동일한 佛敎을 發展시킬지라도 舊敎을 버서 나서 새로운 氣分으로 고쳐서 名稱도 고치고 制度도 고치고 儀式도 고쳐서 하는 것이 불교를 誤解하는 朝鮮人 頭腦의 惡習을 고치는데 가장 有力하리라 생각하고 불교에서 分派獨立된 大覺敎를 세워서 間島에 支部를 두고 이래 이십여 星霜을 大覺敎本部의 大覺敎堂이라고 固守하여 왔었다 그러나 禪師가 老境에 至하여 此가 本意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중략) … 조선 사람이 불교에 대하여 낯비 보는 惡習에 대한 감정에서 나온 것인바 至今하야는 心田開發의 秋를 當하야 當局에서도 불교를 優遇하고 승려의 지위를 向上시키는 中인고로 心田 事必歸正으로 古來佛敎에 歸屬함이 正當함으로 생각하게 된지라 禪師는 大覺敎를 變更하야 가장 因緣이 吉흔 朝鮮佛敎禪敎兩宗海印寺京城布敎所로 고치고 七月 十六日에 一切 文書手續을 完了하였다는데 當敎堂에는 動不動産의 재산이 상당하게잇는 고로 설립대표자로서는 禪師及門徒七人의 名義로하야 當布敎所를 左右하고 永遠히 불교 布敎事業과 慈善事業을 經營하기로 하였다 한다. 그런데 當敎敎堂의 설립자 代表의 氏名은 左와 如하다고 한다.

해인사 경성포교당 설립자 대 표 白龍城

柳道庵 崔昌雲 金警惺 表檜庵 崔雷默 邊月舟<sup>75)</sup>

『불교시보』 13호에는 대각교당을 해인사 경성포교당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실린다. 이 보도에 따르면 1936년 7월에 대각교 동산과 부동산 전체를 해인사 경성포교소로 모두 전환하는 수속을 완료했다는 것이다.<sup>76)</sup> 그런데 1936년 11월 대각교당의 소유권이 해인사에서 다시 범어사로 인계된다. 다음은 『불교시보』에 실린 내용이다.

시내 봉익町 二 大覺敎堂이 大木山 海印寺布敎所로 手續케 되었다고 既報하였스나 그간 當敎堂과 海印寺와 相互間에 條件附로 交涉하던 것이 彼此 意見 相左로 破裂되야 다시 梵魚寺와 交涉을 進行하야 梵魚寺로 移轉 手續을 마치게 되었다. 그래

74)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165.

75) 「대각교당을 해인사 경성포교당으로 변경」, 『불교시보』 13호, 1936. 8, p.7.

76)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p.166-167.

서 當教堂의 基地 建物 及土地와 또 咸陽 잇는 華果院의 基地 及 建物 果樹園과 間島 龍井村에 잇는 教堂 及 不動 林野土地 (以上 現時價十萬 圓 假量)를 모다 梵魚寺에 獻納케 되었슴으로 梵魚寺에서는 그代身 每朔 百圓式 京城布教所에 支佛하야 經費에 充當케 되었다 한다<sup>77)</sup>

『불교시보』에 따르면 그간의 해인사와의 교섭 및 계약이 무효화되었고 범어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대각교당은 범어사에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범어사로부터 매월 초하루에 100원을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용성은 범어사 선원의 종주가 되고 대각사는 범어사 포교당으로 전환되었다.<sup>78)</sup>

## 2. 역경과 저술사업 지속

이 시기 백용성은 대각사에서 역경과 저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대각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하는 불교이다. 일제가 백용성의 대각교를 탄압할 때 주장했던 것처럼 유사종교가 아니다. 백용성은 대각사상의 발현을 위해서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강조했다. 백용성은 그의 교화지침에서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그리고 불교의 지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의 지성화를 위해 참선, 염불, 간경, 주력의 사대수행을 강조했다.<sup>79)</sup> 박영만도 그의 논문 「龍城禪師의 教化樣態考察」에서 백용성은 번역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되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는 것이다.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 그리고 지성화로 가려는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80)</sup> 불교 경전 번역 및 저술 작업을 통해서 불교의 지성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즉 불교의 지성화를 위해 백용성은 대각사에서 역경과 저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비록 이 시기에 대각교는 해산되었지만 대각사의 대각교 중앙본부에서는 계속

77) 「대각교당이 다시 대본산 범어사 경성포교소로 이전 수속」, 『불교시보』 17호, 1936. 12. 1, p.6.

78)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p.167-168.

79)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pp.249-250.

80) 박영만, 「龍城禪師의 教化樣態考察」, 『大覺思想』 25집, 大覺思想研究院, 2016, p.183.

하여 번역과 저술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그의 대각사상도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박용모도 그의 논문에서 이 시기에 백용성이 외형적으로는 대각교라는 이름을 내리지만 불교를 사상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입적하는 그 순간까지 역경사업을 해나갔다고 주장한다.<sup>81)</sup>

이 시기 백용성은 범어사의 중주로 갔지만 대각사에서 발행된 백용성의 저술 사업과 역경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6> 1936년~1940년 백용성 저술서

시기	대상	발행처
1936. 4.	修心論	대각교중앙본부
1936. 7.	釋迦史	대각교중앙본부
1936. 9.	臨終訣	삼장역회
1937. 6.	悟道の眞理	삼장역회
1938. 8.	悟道는 覺	삼장역회

<표 7> 1936년~1940년 백용성 번역서

시기	대상	발행처
1937. 10.	六字靈感大明王經	삼장역회
1938. 5.	千手經	삼장역회
1939. 4.	地藏菩薩本願經	삼장역회 조선불교 선종 총림

### 3.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 전환

앞에서 보았듯이 1936년 대각사는 그 명칭이 '범어사 경성포교당'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다시 대각사는 1937년 후반부터는 '조선불교 선종 총림'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된다. 아직까지는 어떤 이유로 '범어사 경성포교당'에서 '조선

81) 박용모, 『白龍城의 佛敎實踐運動研究』,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4, p.166.

불교 선종 총림'으로 전환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sup>82)</sup> 여기서 다만 명칭을 '조선불교 선종 총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박용모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조선 불교계에 선종의 총림이 선포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명칭으로부터 백용성이 대각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수행자의 근본을 성찰케 할 수 있는 조직을 염두에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83)</sup>

김광식은 선종 총림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불교시보』 30호(1938.1.) 광고란에 게재된 '京城府 奉翼町二 朝鮮 佛教禪宗叢林 白龍城'의 내용이다. 둘째, 1938년 4월 5일자 『동아일보』 보도이다. 이에 따르면 1938년 3월경, 대각교 본부에서 용정 대각교회 지부에 해산하라고 통고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는 1939년 4월에 발간된 『地藏菩薩本願經』의 발행처가 경성부 봉익동 1번지 '조선불교 선종 총림 삼장역회'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sup>84)</sup>

더욱이 대각교 내부에서 발행된 문서에서도 '조선불교 선종 총림'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김광식은 밝히고 있다. 한 예로 1938년 변봉암이 화관원에서 동안거 수행을 수료한 후 받은 안거증에는 '朝鮮佛教禪宗叢林'이라 적혀 있었다.<sup>85)</sup> 또 변봉암이 1939년 대각사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백용성에게 받은 안거증에도 '朝鮮佛教禪宗叢林'이라 적혀 있다.<sup>86)</sup> 이런 다양한 기록을 보았을 때 대각교는 1937년 후반부터는 '범어사 경성포교당'이라는 명칭에서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광식은 조선불교 선종 정기 선회의 「회록」을 입수하여 백용성 및 대각교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1939년 3월 23일에 개최된 제1회 조선불교 선종 정기 선회의 「회록」에 따르면 범인 불참여 선원 대상자에 범어사 경성포교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이 무렵까지는 법적으로 대각교당이 범어사 경성포교소로 존재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2회 선회의 「회록」(1941.3.)에 따르면 대각교는

82)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176.

83) 박용모, 『白龍城의 佛教實踐運動研究』,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4, p.164.

84)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p.169-170.

85) 위의 책, p.171.

86) 위의 책, p.172.

1939년 11월 2일부터 선리참구원으로 편입되었다. 백용성은 대각교 재산을 재단법인 선리참구원에 기부하겠다고 계약만 체결하였고 등기 등록은 하지 않았다.<sup>87)</sup> 이런 상황에서 백용성은 1940년 음력 2월 24일에 입적하게 된다. 그리고 선리참구원과 맺은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다.

## V. 결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본 연구는 현대 한국불교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대각사와 창건주였던 백용성의 활동을 중심으로 세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백용성이 상경한 1911년부터 백용성이 3·1 독립운동 민족대표로 옥고를 치르게 되는 1920년까지가 첫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백용성이 경성 감옥에서 출옥한 해이면서 삼강역회를 출범시킨 해인 1921년부터 대각사의 소유권이 범어사로 인계되는 1936년 전해인 1935년까지를 두 번째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6년부터 백용성이 입적하는 1940년까지를 마지막 세 번째 시기로 구분하였다.

1기의 대각사(1911~1919)에서는 대각사의 창건과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대각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대각사의 창건 연대에는 여러 설이 있었다. 1911년설, 1914년설 그리고 1916년설 세 가지가 그것이다. 그리고 1919년 서대문 감옥에서 백용성이 직접 구술한 취조서에 따르면 1916년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보인다. 한편 백용성이 활동했던 시기의 대각사는 민족독립 운동의 성지였다. 불교계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논의가 대각사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백용성은 1919년 3·1 독립운동의 민족대표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받아 기꺼이 참여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2기의 대각사(1921~1935)에서는 역경 사업과 저술사업의 場, 저항으로서의 대각교 선포의 場, 그리고 대중포교 중심의 場으로서의 대각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대각사는 역경 사업을 통해 쉽게 대중들이 불교 서적을 접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술사업을 통해 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대처 식육을

87)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173.

반대하는 내용의 건백서를 일제에 제출하고, 불교라는 명칭을 바꾸어 대각교로 선포하는 등 저항하는 사찰로서의 면모를 당당히 보여 주었다. 나아가 대각사는 대중포교를 위해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의식을 혁신적으로 개혁하여 일반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대각사에서는 찬불가를 부르는 등 당시에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불교를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각사는 대중포교를 위해 참선 수행에 있어서도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재가자들과 함께 하는 ‘하안거’를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특히 여기에 여성 수행자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각사는 한국의 현대불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3기의 대각사(1936~1940)에서는 계속된 번역과 저술사업 그리고 대각사 명칭의 변경을 다루었다. 특히 명칭의 변경과 관련하여 1936년 대각사는 그 명칭이 ‘해인사 경성포교당’으로 바뀌었다가 ‘뱀어사 경성포교당’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다시 대각사는 1937년 후반부터는 ‘조선불교 선종 총림’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된다. 그리고 대각교는 1939년 11월 2일부터 선리참구원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백용성이 1940년 음력 2월 24일 입적하면서 선리참구원과 맺은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다. 백용성의 입적 후 대각사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 고찰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대각사는 일제에 대한 불교계 저항의 시발점이 된 곳이었다. 또한 마침내 대각교를 선포함으로 사상적으로도 일본불교의 침탈에 당당히 맞서 싸운 사찰이었다. 저술과 역경 사업을 통해 백용성이 불교의 지성화를 꾀하였던 사찰이었다. 참신하고도 앞서가는 방법으로 한국 대중불교의 활성화를 이루어낸 사찰이기도 하였다. 이는 불교계의 거목이라고 볼 수 있는 백용성이 있어서 가능하였지만, 백용성 또한 대각사라는 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있었기에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각사는 백용성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백용성이 활약했던 당시의 대각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백용성만큼이나 그 역할이 빛났다. 그리하여 백용성이 한국 불교사에 길이길이 기념되듯이 대각사도 그와 함께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참고문헌

백용성, 『백용성대중사총서 전집』,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3·1운동)』, 국사편찬위원회, 1990.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 『백용성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김순석,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운주사, 2009.  
 김택근, 『백용성평전』, 모과나무, 2019.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총본산 대각사, 『大覺寺』,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총본산, 2013.  
 박희승, 『이제, 승려의 입성을許함이 어떨는지요』, 들녘, 1999.  
 신지건, 『25+10=X』, 불교신문사, 2018.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이병두 역주, 해안, 2003.  
 이병현,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출판국, 2002.  
 이상배·류상진, 『서울 2천년사』 24,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4.  
 한동민, 『백용성』, 역사공간, 2018,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帶妻食肉論과 白龍城의 建白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大覺思想』 3집, 大覺思想研究, 2000.  
 ———, 「백용성 사상과 민족운동 방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2.  
 ———,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 『大覺思想』 6집, 大覺思想研究, 2003.  
 ———, 「불교 근대화의 노선과 백용성의 대각교」, 『大覺思想』 10집, 大覺思想研究院, 2007.  
 ———,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大覺思想』 20집, 大覺思想研究院, 2013.  
 ———, 「용성과 한암의 행적에 나타난 정체성」, 『大覺思想』 23집, 大覺思想研究院, 2015.  
 김정희, 「백용성의 생애와 불교개혁론」, 『불교평론』 12, 현대불교신문사, 2010. 12.  
 김종인, 「백용성의 근대와의 만남과 불교개혁 운동」, 『大覺思想』 23집, 大覺思想研究院, 2015.  
 김성연, 「조계사의 창건과정과 종단 건설」, 『전자불전』 21집, 2019.  
 박범훈, 『불교음악의 진래와 한국적 전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98.  
 박영만, 『龍城禪師의 教化樣態 考察』, 『大覺思想』 25집, 大覺思想研究院, 2016.  
 박용모, 『白龍城의 佛敎實踐運動研究』,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14.

- 조승미, 「백용성의 참선 대중화 운동과 부인선원」, 『大覺思想』 27집, 大覺思想研究院, 2017.
-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대중포교활동」, 『大覺思想』 6집, 大覺思想研究院, 2003.
- \_\_\_\_\_, 「백용성선사의 불교개혁론」, 『회당학보』 2, 회당학회, 1993.
- \_\_\_\_\_, 「龍城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大覺思想』 2집, 大覺思想研究院, 1999.
- \_\_\_\_\_, 「일제시대 三藏譯會의 성립과 역할」, 『전자불전』 4집,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2002.
- \_\_\_\_\_, 「백용성 스님의 청소년 포교에 관한 연구」, 『大覺思想』 8집, 大覺思想研究院, 2005.
-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三藏譯會 설립과 허가취득」, 『大覺思想』 9집, 大覺思想研究院, 2006.
- 김민경, 「노래하는 재미로 법회에 다녔지」, 『법보신문』 1998년 6월 3일.

## Abstract

### Rev. Baek, Yongseong and Daegaksa Temple

Her, Jung-sun

(Completed the Ph.D. program of Seon Studies, Dongguk Univ.)

Rev. Yongseong Baek(1864~1940) was a Buddhist monk and independence activis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great master built Daegaksa Temple, which would become a mecca for Buddhist teaching and a fulcrum of the March 1st Liberation Movement. In that gloomy period, Yongseong tirelessly strove for the independence and the revival of traditional Korean Buddhism. At that time, Joseon society was in a chaotic and disordered state, largely because of the Donghak Civil War and the decline of Confucianism. Buddhism was also severely oppressed by hegemonic dynastic rule; nevertheless, the religion was strong enough to prevail for monks like Yongseong to succeed to the abbacy.

In this social atmosphere, Rev. Yongseong, who had been ordained as a Buddhist monk, moved to Seoul in 1911 after practicing in various temples and meditation halls across the country. It was here in the capital where he devoted himself to the revival of traditional Korean Buddhism and its growing popularization. In 1916, he established Daegaksa Temple, which would not only act as the intellectual hive for his Daegak ideas but also as the center for his national independence and mass proselytization activities. In addition, in 1921, Rev. Yongseong organized the Samjang Translation Society, thus initiating a fully~fledged translation project that would translate and publish in earnest Buddhist scriptures.

The first period was between 1911 and 1920. The great master Yongseong was sentenced to prison for signing the famous March 1<sup>st</sup> 1919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e was released from Gyeongseong Prison in 1921. The first phase examines the founding of Daegaksa Temple as well as the role the temple would

play as center for the Buddhist independence movement. The second period was between 1921, the year in which the Samjang Translation Society was launched, and 1935 when the ownership of Daegaksa Temple was transferred to Beomeosa Temple. In the second phase, I examine the role Daegaksa Temple played as the center of public mission; for instance, as loci of translation and writing projects, of resistance (vis a vis the declaration of Daegakgyo), and of mass proselytization.

Finally, the third was between 1936 and 1940 (Rev. Yongseong passed away in 1940). The last phase covers the ownership of Beomeosa Temple, wherefrom he continued his translation and writing projects, including the transition to the Chongrim (a comprehensive monastic training system) promulgated by the Joseon Buddhist seon order. Just as Yongseong is justly celebrated in the annals of Korean Buddhist history, people will likewise remember Daegaksa Temple for it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Buddhism.

### Key words

Rev. Baek, Yongsung, Daegakgyo, Daegak ideas, Daegaksa Temple, a mecca for the Buddhist teaching, the March Ist Liberation Movement, the Samjang Translation Society, translation and writing projects, mass proselytization, revival of traditional Korean Buddhism.